

#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이봉주 · 김광혁 · 정익중 · 김예성 · 나은숙(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1. 서론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문제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공식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설립된 이후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판정된 사례는 2001년에 약 2,000건이었으나 불과 5년 후인 2005년에는 그의 약 2.5배 수준인 4,600여건을 기록하였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18세 미만 아동인구 만 명당 아동학대율도 2001년의 1.8 명에서 2005년에는 4.2로 5년 동안에 약 130%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아동학대와 방임은 그 자체가 아동발달의 중요한 위험요소임으로 최선의 대책은 아동학대와 방임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방적 대책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예방인 1차적 예방과 아동학대와 방임에 처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2차적 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와 방임의 효과적인 예방책으로는 고위험층을 주 대상으로 한 2차적 예방이 강조 된다(윤혜미, 2003).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2차적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방임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한 지역 사회의 전체 아동을 대표하는 표본에 기초한 개인적 수준(individual level)의 자료를 이용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단적 조사(panel study)인 서울아동패널 조사의 1-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가족구조, 특히 한 부모 가족구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족빈곤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의 상호작용 패턴은 어떠한가? 즉,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추가적 위험요소로 작용하는가?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2차년도 자료이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785여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panel survey)이다.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를 선정하여 자치구 내의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여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아동패널은 1차 년도인 2004년에 11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고,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1,785사례 중 93.94%인 1,677사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이 보고하도록 개발된 신체적 학대와 방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는 가족빈곤과 가족구조이다.

먼저 가족빈곤은 욕구소득비 1미만을 빈곤 가구로 정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살려 가족빈곤을 빈곤에 처한 년 수에 따라 차등화하였다. 또한 가족구조는 부모 가족(1)과 양 친부모가족(0)으로 1차년도 기점으로 측정되었다. 부모의 우울은 SCL-90 우울 관련 8문항이 사용되었다. 부부생활 만족도는 KMS(Kansas Marital Satisfaction)의 2문항이 사용되었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 또는 모와 아동의 관계(유대감)를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0)과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 이상(1)으로 2분화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아동의 성은 여성(1), 남성(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아동의 형제수 변수와 형제순서(말이 여부)를 말이(1), 말이가 아닐 경우(0)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OLS 방식의 선형회귀 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1) 기초분석 결과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기술 통계치

변수(변수명)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신체학대	2차년도 신체학대 5문항 (전혀없다=1, 1년에1-2번정도=2, 2-3개월에한두번정도=3, 한달에1-2번정도=4, 일주일에1-2번정도=5)의 합, $\alpha = .67$	5.44 (1.31)
방임	2차년도 방임 4문항 (전혀없다=1, 1년에1-2번정도=2, 2-3개월에한두번정도=3, 한달에1-2번정도=4, 일주일에1-2번정도=5)의 합, $\alpha = .52$	4.09 (.59)
가족빈곤(%)	1, 2차년 모두 가족 빈곤 여부 (비빈곤=0), 1, 2차년 중 1년 빈곤 (빈곤은 욕구소득비 1미만)	4.9 5.9
가족구조 (%)	양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96.3 3.7
부모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학입학(전문대 포함) 이상	58.1 41.9
아동의 성(%)	남성=0, 여성=1	48.0
형제 수 및 순서 (%)	형제 수 (명) 맏이 여부 (맏이 아님=0)	1.24 (1.59) .47 (.50)
출산 시 건강(%)	출산 시 저체중, 조기분만, 입원 여부 (비해당=0)	7.0
부모 우울	부모의 우울 8문항(4점 척도: 전혀그렇지않다=1~매우 그렇다=4)의 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심함, $\alpha = .90$	11.99 (3.80)
부부생활 만족도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도 2문항(4점 척도: 전혀그렇지않다=1~항상 그렇다=4)의 합,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음, $\alpha = .91$	6.19 (1.55)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유대관계 3문항(4점 척도: 전혀그렇지않다=1~항상 그렇다=4)의 합,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관계 좋음, $\alpha = .79$	9.71 (2.13)

#### 2)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윈 분석 방법인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모형 I에서는 한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 양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체적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특성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자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 위험 정도가 남자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맏이인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 위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와 출산 시의 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학력의 경우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가족구조, 가족빈곤과 신체적 학대의 관계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성별 (남자 아동=0)	-.281*** (.065)	-.301*** (.069)	-.307*** (.069)	-.319*** (.069)	-.274*** (.070)
부모학력					
대학 입학 이상 (대입이상미만=0)	-.070 (.066)	-.084 (.071)	-.073 (.071)	-.086 (.070)	-.020 (.072)
출산건강 (비해당=0)	.074 (.099)	.021 (.107)	.006 (.107)	-.008 (.107)	.017 (.107)
가족구조					
한 부모 (양부모=0)	.633*** (.169)		.753*** (.192)	.307 (.214)	.724*** (.213)
형제 수	.014 (.022)	.016 (.024)	.021 (.024)	.020 (.024)	.021 (.025)
말이 여부	.200*** (.067)	.219*** (.071)	.218*** (.071)	.235*** (.071)	.206*** (.071)
1,2차년 모두 빈곤		.627*** (.160)	.534*** (.164)	.260 (.176)	.579*** (.177)
1,2차년 중 1년만 빈곤 (비빈곤=0)		-.069 (.149)	-.139 (.150)		-.155 (.152)
한 부모×1,2차년모두빈곤여부				1.950*** (.460)	
부모 우울					.001 (.010)
부부생활 만족도					-.047* (.026)
부모-자녀관계					-.052*** (.017)
상수	5.479*** (.069)	.5.487*** (.070)	5.464*** (.074)	5.473*** (.073)	6.221*** (.291)
Adj. R <sup>2</sup>	.022	.025	.035	.046	.044

\*p<.10, \*\*p<.05, \*\*\*p<.01

모형 II는 가족빈곤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1-2차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한 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아동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신체적 학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 2차년도 중 1년 만 빈곤한 경우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형 III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학력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가족구조와 가족빈곤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각 각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도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V에서는 부모 우울정도, 부부생활 만족도, 부모-자녀 관계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통제하는데, 그렇게 추가 변수로 통제된 후에도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부모학력을 통제한 가운데 1-2차년도 빈곤변수와 한 부모 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신체적 학대에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다. 모형 IV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한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동시에 빈곤한 상태에 있으면 신체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두 위험요소가 상호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아동에 대한 방임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모형 I에서는 아동특성과 부모학력을 통제한 가운데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신체적 학대의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아동의 성별과 만이 여부가 방임 정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모 가족변수는 방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positive)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 양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방임의 위험에 처해있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II에서는 가족빈곤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1-2차년도 지속적인 빈곤이 아동방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III은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을 동시에 투입하여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은 상호 통제된 상태에서도 각각 모두 중요한 아동방임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V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모 우울, 부부 생활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변수를 투입한 후에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아동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통제 변수들을 추가한 후에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의 영향력은 오히려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부부생활 만족도는 아동방임 정도와 부적(negative)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한 가족일수록, 그리고 한 부모 가족일수록 부부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부부생활 만족도 변수를 통제된 후에는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의 영향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lt;표 3&gt; 가족구조, 가족빈곤과 아동방임의 관계

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성별 (남자 아동=0)	-.033 (.029)	-.035 (.032)	-.036 (.032)	-.043 (.032)	-.043 (.034)
부모학력					
대학 입학 이상(대입이상미만=0)	-.028 (.030)	-.040 (.033)	-.036 (.033)	-.041 (.032)	-.044 (.035)
출산건강 (비해당=0)	-.021 (.045)	-.023 (.050)	-.030 (.050)	-.038 (.049)	-.026 (.051)
가족구조					
한 부모 (양부모=0)	.279*** (.077)		.318*** (.089)	.079 (.099)	.452*** (.102)
형제 수	-.007 (.010)	-.008 (.011)	-.006 (.011)	-.006 (.011)	-.008 (.012)
말이 여부	-.001 (.030)	.000 (.033)	-.001 (.033)	-.009 (.033)	-.008 (.034)
1,2차년 모두 빈곤		.237*** (.074)	.198*** (.076)	.058 (.081)	.285*** (.085)
1,2차년 중 1년만 빈곤 (비빈곤=0)		-.075 (.069)	-.107 (.070)		-.098 (.073)
한 부모×1,2차년모두빈곤여부				1.023*** (.213)	
부모 우울					-.008 (.005)
부부생활 만족도					-.033*** (.012)
부모-자녀관계					.008 (.008)
상수	4.120*** (.030)	.4.136*** (.034)	.4.126*** (.034)	.4.128*** (.034)	.4.363*** (.140)
Adj. R <sup>2</sup>	.006	.006	.014	.027	.024

\*p&lt;.10, \*\*p&lt;.05, \*\*\*p&lt;.01

마지막으로 모형 IV에서는 아동방임에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신체적 학대 영향 요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현상을 보였다. 즉, 한 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동시에 빈곤한 상태에 있으면 방임에 노출될 위험이 두 위험요소가 상호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아동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족구조와 가족빈곤과 아동학대와 방임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가족빈곤과 한 부모 가족구조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은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개의 위험요소가 동시에 발생할 때에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이해를 진일보시켰다는데 있다. 특히, 연구의 주요 결과로 나타난 한 부모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두 변수는 그 영향이 상호작용적이라는 발견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체계 구축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차적 예방체계가 주목하여야 할 위험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아동빈곤율과 한 부모 가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보다 많은 아동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자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이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적 사후개입 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방임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 특히 빈곤과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계로는 본 연구가 비록 한 지역의 아동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확률표본에 의하여 구축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의 한 지역만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의 아동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신체적 학대에만 주목하였는데, 향후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나 성 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2006』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5년』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윤혜미. 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